



수출증기에 8천억 특별지원

환율하락 고통을 받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최고 1% 금리우대가 적용되는 8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이 국책은행을 통해 지원된다. 또 환율급변 시 신규 및 기존 대출에 대해 원화 또는 외화로 무상 전환할 수 있는 통화전환옵션도 활용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민간은행의 대출지원도 지난해보다 1조 넘게 증액된다.

정부는 6월 8일 최근 환율하락으로 인해 수출 중소기업들의 채산성이 악화됨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 같이 밝혔다.

특히 환율 급등락에 따라 일시적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된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국책은행을 통해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하기로 정했다.

우선 산업은행은 지난해 3월부터 1억달러 규모의 외화한도대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것과 병행해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운영자금 5000억원을 신규로 공급한다.

지원대상은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이 30% 이상, 신용등급 B0 이상되는 수출 중소기업이며, 0.8%의 금리우대와 운영자금 대출한도 초과지원이 제공된다.

기존에 중소기업 대상으로 운영되던 금리우대(우량기준거래처 $\Delta 0.8\%$, 신규거래처 $\Delta 0.6\%$) 운영자금 7000억원도 수출 중소기업에 우선 지원하기로 해, 총 1조 2000억원이 지원되는 셈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최대 100억 보증

올해 하반기 중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관을 통해 100억원까지 특례보증이 지원된다. 투자자금의 70% 이내 대출이 가능하도록 보증서가 발급되며 최대 보증기간은 7년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특례보증을 통해 민간 금융기관에서의 대출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6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성공단 입주기업 금융지원시스템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치적 위험 등으로 인해 민간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신용공급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보증을 해주고 민간측의 자발적 참여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부품 소재 신뢰성향상에 380억 지원

산업자원부는 국산 부품·소재의 고장을 줄이고 내구 수명을 늘려 신뢰성을 향상시키는데 올해 380억원을 지원한다.

우선 부품·소재의 내구수명, 고장을 예측을 위한 평가장비 구축과 평가기준 개발, 해외인증제도와의 상호인증에 285억원을 지원하고, 장비와 인력 등 신뢰성 인프라를 활용한 불량과 크레임 등 신뢰성 문제해결 지원에 80억원, 신뢰성 인재양성에 15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특히 양질의 현장밀착형 신뢰성 서비스 제공을 위해 6월부터 20억원 규모의 '신뢰성 쿠폰'을 약 1,000여개 부품·소재기업에 지원하고, '홈닥터식 1인 1사 지원제도'를 도입해 평가기관의 신뢰성 전문가 200여명을 신뢰성 주치의로 선정, 월 1회 이상 지원대상 기업방문을 통해 문제를 상시 발굴·지원하게 된다.

■ 자료제공: 기업금융연구원 정책자금 종합정보(fund.re.kr)